

화순교육지원청, 작은학교 특화프로그램 체험활동 운영

‘작은학교에서 한달 살기’...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홍보 화순교육생태계 선순환 유도하고자 하는 교육체험활동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희)은 작은학교의 강점이 부각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작은학교에서 한달 살기’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작은학교에서 한달 살기’ 체험활동이란 화순 읍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지역 작은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작은학교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화순교육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교육체험활동이다. 화순지역에는 작지만 강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고 학교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수 감소에 따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반면 읍지역 학교의 학부모들은 작은학교에 관심이 많으나 학교별 특화된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화순교육지원청에서는 읍단위 학생들이 면단위 작은학교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해 보게 하는 ‘작은학교 한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참여 대상은 읍지역 4개 초등학교의 3~4학년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희망서 신청서를 통해 체험학교를 선정하고 학생 통학 등 운영과 관

련하여 제반 사항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화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장들의 전문적인 집단사고를 통해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교장 영상회의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다. 영상회의에 참석한 교장선생님들은 운영 취지가 의미가 있고 집단사고를 통해 계획을 수정하고 현실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된 것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화순교육지원청 이현희교육장은 “어제도 탁트인 강변에서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면서 작은학교 프로그램을 하고있는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을 보았는데 출발점에 선 ‘작은학교 한달 살기’ 체험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교육청, 이천년 비단고을 나주역사 시간여행 떠나다

2021 전입교원 및 3학년 담임교사 연찬회 진행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23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과 국립나주박물관에서 3월 1일 자 전입 교원 및 초등 3학년 담임교사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전입 교원 및 초등 3학년 담임교사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해당 교원들에게 ‘우리 고장 나주

역사와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 유적 답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고장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체득하고 이를 교육활동에 활용하고자 매년 나주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찬회는 강사인 김남철 나주학회 이사의 이천년 나주 역사에 대한 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고대 마한 문화 흔적이 생생히 살아 있는 국립나주박물관과 반남고분군 답사,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근현대사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국난을 극복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실과 의병 인물들에 주목하고 이를 통한 지역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 참가한 동강초 교사는 ‘코로나 19 전

염병 확산 방지 차원으로 작년 행사가 취소되어 나주에 전입한 지 3년 차에 처음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며 ‘학급교육과정 운영에 오늘 경험한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김영길 교육장은 ‘전입 교원들을 환영하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우리 고장 나주가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혁신교육지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교원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교과 융합과 학생 역량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참가 교원들에게 부탁하였다. 나주교육지원청은 전남형 미래학교를 추진을 목표로 전입교원 연찬회, 나주미래교육 포럼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행사들을 추진 중에 있다. 기동취재본부

장성Wee센터, 학부모 대상 ‘늘봄 부모교실’ 운영

‘원예 통한 심리테라피의 이해와 실제’ 주제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미숙)Wee센터가 22일 학교지원센터 직업체험실에서 장성 관내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Wee센터 늘봄 부모 교실’을 운영했다. ‘원예를 통한 심리테라피의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은 원예교육 전문가인 고영순 한국길버트프공예센터장을 초빙해 이뤄졌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원예 활동이 자녀 교육 과정에서 갖게 되는 부담감을 덜

어주고, 안정감과 위안을 준다는 사실을 실제 사례 중심의 생생한 강의를 통해 깨달았다. 특히, “식물의 성장 과정을 통해 자녀의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됐다.”며 흡족해 했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비바람 속에서도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많은 정성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원예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학부모



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청암대, 제2회 전국고교 웹툰 공모전 개최

오는 10월 8일까지 ‘세계 속의 대한민국’ 주제로 웹툰 공모전 개최 전국고교 재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최종 당선작 10월 11일 발표 예정

청암대학교(총장 서형원)는 웹툰 분야의 저변 확대 및 전문 인재 발굴을 위하여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청암대학교 전국고교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1년 10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카툰, 캐릭터디자인 / 스토리만화 분야 중 선택하여 응모하면 된다. 또 공모전 참가는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 신청서를 청암대학교 웹툰콘텐츠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고 완성된 작품이미지와 함께 웹툰공모전 운영사무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금은 독창성, 표현능력, 스토리텔링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교수 2명, 웹툰작가 3명)의 점수를 종합해 대상 1명, 각 분야 별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5명 등 최대 50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품이 수여되며, 장려상 이상 수상자는 본 대학 웹툰콘텐츠과에 입학 시 총장특별장학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10월 11일 청암대 웹툰콘텐츠과 홈페이지(<http://www.ca.ac.kr/webtoon>)에 발표된다. 웹툰공모전 수상작의 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향후 대학 홍보용 콘텐츠로 활용될 계획이다. 참가신청서 등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청암대 웹툰콘텐츠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순천=김승호 기자

